

##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권 \_ 제 176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6월 18일

# 함즐함울

www.pcltv.org

## 오늘, 1주년 기념 예배

#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위한 전도의 장으로 자리매김”



를 건네게 되었다.

지난 6월11일 주일에 있었던 1주년 축하예배에선 오늘 연주팀과 해금연주자 최남영씨, 그리고 재즈피아니스트 김광민씨의 찬양, 국악, 재즈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연이 있었다. 예배 후에는 커피 앞에서 모두가 감동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약속을 다짐하는 작은 파티를 가졌다.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위한 예배〉라는 재미나고 신비로운 포스터 한 장, 교회입구마다 걸려있던 예쁘고 양증맞은 환영 메시지, 이루마, 이지선, 김광민... 팬클럽까지 동원케 했던 예사롭지 않은 초청연주와 강연..

4부전도예배 〈오늘〉의 그 아름답고 독특한 행보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었다. 이 예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돕기 위해 모인 손길들로 인해 예배를 기획, 준비하고 진행하며, 또 소모임을 통해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 팀이 구성되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결같이 서로를 격려하며 섬기는 1년 동안 〈오늘예배〉가 처음 모습 그대로 제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믿기지 않는 심정으로 조심스레 계단을 오르던 몇몇 걸음들은 이제 마니아가 되어 매주일 반가이 인사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소박하게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4부예배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멀리 떨어진 느낌보다는 어머니로, 친구로, 때론 나 자신으로 다가와 울고 웃고 싸우고 회복하는 우리 삶의 단편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 그 작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하고도 담담한 고백과 선언은 더욱 매력적이고 강력하다.

이제껏 우리인생의 주제가 〈그리스도가〉아니었을 때를 상상할 수 없게 하는 아름다운 전환점 〈오늘〉이 더욱 아름다운 전도예배로 자리 잡기를 모든 스태프는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

## 교회창립 기념음악회

2면



주님의교회의 창립 18주년을 맞아 살롬찬양대의 기념음악회가 열린다.

## 오늘 오후 4시, 30CUP예배

3면

## 교사수련회

3면

## 안나구역, 안면도여행기

## “봄날은... 소풍 간다.”



지난 6월 9일 안나구역 연합 나들이가 있었다. 정희성 목사를 포함 모두 24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안나구역이 생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마음이 설레어 밤잠을 설친 할머니들은 일찍 버스에 올라 목적이인 안면도로 향했다. 어딘가 떠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워 찬송이 절로 나왔다. 그리고 한창 때 즐겨 부르던 노래들을 불렀다. 또한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완전정복도 시도했다. 왜 그리도 어렵던지! 수도 없이 부르고 또 불러야 했다. (2면에서 계속)

## 4부예배, 오늘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대합니다.

1. “Bravo My Life” \_ 오늘 연주팀
2. “Sing-Along” \_ 강현석
3. “직장을 잃다”(살전 5:17) \_ 이호 목사
4. “인생 3막” \_ 오늘 연극팀
5. “허무한 시절” \_ 이종익

4부 전도예배 “오늘”에서는 6월을 특별히 “상실”로 “잃는 것이 인생일진대”라는 테마로 기획하였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직장을 잃다”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린다. 찬란한 계절이 오히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만든다. 생각지도 못한 실직이나, 부도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안에서 바라 볼 때 전혀 새로운 가능성이 있음을 성령은 말한다. 즉 이러한 상황도 능히 극복하여 돌파할 수 있는 아늑한 길로 개신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을 조명한다. 파산과 몰락을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부활하신 사건은 오늘 실직과 같은 수렁에 빠진 영혼들에게 영육간에 소생할 길을 제시해 준다.

## 2006 선교부흥회 ‘이제 가라!’ (출3:9-10)

## “Come, and I will send you!”



주님의교회 선교부흥회가 오는 6월 26일(월)~28일(수), 3일간 저녁 7시30분부터 문누가 선교사를 초청강사로 대예배실에서 시작된다. 선교부흥회의 주제 『이제 가라!』(출3:9-10)는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누가선교

사는 LA영락교회에서 파송 받아 중앙아시아 K국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의할 주제는 첫째 날, 「우리는 왜 선교해야만 하는가?」, 둘째 날, 「전문인선교사의 역할과 우리의 과제」, 세째 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이다. 특히 이번 선교부흥회에는 우리 교회 선교사역본부에서 개별 사역팀별로 사역의 현황을 알리는 부스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진행본부에서는 이번 선교부흥회를 통해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선교적인 가치관을 지닌 삶으로 업그레이드되길 희망하고 있다. 창립기념일 다음날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창립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재현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 교회 창립 기념 음악회 개최



교회창립 18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음악회가 살롬 찬양대 주관으로 오는 6월 21일(수)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하나님을 찬양하라(Jubilat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기존의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위주의 딱딱한 공연 형식에서 벗어나 교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다양한 형태의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주축이 된 “영 살롬중창단”과 중후한 음성의 ‘살롬 남성중창단’이 헨델의 ‘할렐루야 아멘’, 토마스 캠펔의 ‘어찌 날 위함 이온지’ 등의 아름다운 중창을, 다양한 수상 경력의 초등학생 김예랑 양과 소프라노 김정민, 이주희 양이 각각 바이올린 독주와 소프라노 독창을 선사하며, 살롬찬양대(지휘 이동훈 집사)가 하이드의 ‘천지창조’를 연주함으로써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 일시: 2006. 6. 21(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대예배실
- 출연: 살롬 남성중창단, 영 살롬, 김예랑(바이올린), 김정민(소프라노), 이주희(소프라노), 살롬찬양대(지휘 이동훈 집사)
- 주최: 목양사역본부

살롬 찬양대는 현재 100여명의 대원들이 3부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드리기를 원하는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하프타임 연속강의 음식과 건강

###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섭취하며,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지난 주, 하프타임 강좌는 음식과 건강을 주제로 이영남교수(경희대 호텔관광대학 영양학, 주님의교회 권사)가 맡았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건강이 좌우되므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교수는 건강과 식생활의 관계, 영양소의 균형있는 섭취, 약이 되는 음식의 효능, 사상체질 등에 대해 강의했다.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영양관리는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영양의 과잉과 부족에의 원인으로 많은 질병(뇌졸

중,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이 찾아 온다고 했다.

이어 서구화된 우리의 식생활, 유전 공학의 발달로 인한 가공식품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섭취해야하는 자연 식품을 우리 몸에 맞게 먹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영양소의 종류와 생리적인 기능, 약제와 약용가치를 지닌 식재료의 배합으로 맛과 향을 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음식의 영양소, 보양식품, 사상인의 체형 등 올바른 식생활에 관련된 강의가 계속 되었다.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더욱 많이 섭취하게 되고 불필요한 외식을 가능한한 줄이게 된다는 이교수는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적이고 실현가능한 지혜를 깨우쳐 주었다.

(1면에 이어서)

### 안나구역 안면도여행기 “봄날은... 소풍 간다.”

한 구역식구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발표해 보고 싶다고 했다.

꽃지 해수욕장에 도착해 산책을 하고 바다 바람도

시원하게 맞았다. 그리고 점심식사. 꽃게탕에 굴밥. 다음코스는 소나무 숲에 있는 수목원. 볼거리는 많았지만 걷기가 힘이 들어 조금 밖에 못보

고 시원한 나무그늘에 앉아 쉬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 돌아오는 길은 피곤해서였는지 모두 조용했다. 맑은 날씨를 허락해주신 것도, 모자란

저녁예산을 채워주신 것도 역시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었음을 경험하는 즐거운 여행이었음을 참여한 구역원들은 기쁨으로 전한다.

## 역사자료보존팀

### “주님의교회 20년 산 역사의 정리”



교회 기록관리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 모습을 하나님께 바치는 산 제물이라고 어느 신학자는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인들의 역사, 문학, 시와 노래, 예언 등이 대대로 전승되어 구약성서를 형성하였고,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을 그 제자들이 기록으로 남겨 신약성서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전승 기록들을 바탕으로, 지난 역사 속의 선조들은 과거를 회개하고 현재에 대해 감사하며, 나아가 미래를 설계하는 지표로 삼아왔다. 교회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이 갖는 현재적 의미는 바로 이러한 점을 출발점으로 하게 된다. 교회 기록관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자 및 제직, 신도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고취시켜 준다. 이러한 교회기록은 총체적인 신앙사업에 대한 증거를 후대에 전승해주며, 교회사 연구 및 편찬사업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교회 행정의 효율화와 더불어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감소시켜 주며, 나아가 교회의 종합 홍보센터로서의 기능과 함께 교역자, 장로, 일반신도에 대한 기념의 공간을 제공해주게 된다.

역사자료보존팀(팀장 배성은 집사)에서는 지난 5월 17일부터 주님의교회 창립 2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 역사기록 정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창고 및 각 사무실에 방치되어 온 교회 창립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는 교회 기록물을, 최신의 기록관리 이론을 도입하여 과학적인 방식으로 정리·보존할 계획이다. 정리대상은 종이 문서류들을 비롯하여 오디오·비디오테이프, 사진 및 각종 필름, 디지털 이미지 및 동영상 자료 등 교회 사업 및 신앙생활, 각종 행사 등과 관련된 기록들로, 교회 20년사 편찬사업에 기초 사료로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현용 기록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교회의 모든 기록들을 생산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기록관리는 거의 행해지지 않으며, 정동제일교회, 새문안교회 등 극히 일부 교회에서 수행되는 기록관리 역시 주로 박물관식의 전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주님의교회 기록정리 사업은 본격적인 교회 기록관리의 전형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해외의 최신 기록관리 이론 및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여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교회 기록관리의 전형적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사수련회

## " 감동과 웃음을 위한 세심한 배려 가득 "

교사수련회가 지난주일 4일, 오후3시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포천의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있었다. 언제나 학생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육사역본부의 모든 교사들을 위한 위로의 잔치였다.



오후 세시쯤 도착한 광림세미나하우스에는 교육지원부의 세심한 배려가 공간마다 배어 있었다. 로비를 향기로 가득 메운 아름다운 꽃꽂이들, 각 방과 로비마다 놓여있는 꽃장식과 풍선공예들, 교사들을 위한 카드, 과일바구니 등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과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작은 이벤트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프로그램도 교사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짜여졌다. 교사들은 한웅재목사(CCM가수)의 콘서트와 교회학교별 대항 레크레이션과 국립수목원 산책 등으로 1박2일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다. 교사들은 '소원' 이

란 곡으로 유명한 한웅재목사의 콘서트에서 노래를 감상하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며 하나님을 향한 한목사의 고백과 삶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다음날 오전, 교사들은 다같이 국립수목원으로 산책을 갔다. 교사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산림욕을 즐겼다. 중등부의 한 교사는 늘 한 주간을 바쁘게 보내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데, 이런 편안한 자리가 마련되어 모처럼 마음 놓고 쉴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 또 방과후학교의 한 교사는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육지원부의 노고와 배려에 감동했다고 전했다.



## 오늘 기도



우리 모두의 삶에 변화의 권능을 주옵소서...

2006.6.18

##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하십니까?”

6월 11일, 개성병원 김주윤목사 주일 예배 설교



지난 주일(11일), 1~3부예배에는 그린닥터스의 개성병원에서 사역하는 김주윤목사가 ‘행복하십니까?’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8절의 말

씀을 전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변화의 권능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과 함께 북한사람들의 현실과 개성공단에서의 생활 등을 북한사투리를 섞어가며 설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란 곳이 견고한 이단집단과도 같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뛰어넘는 신앙과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북한 선교는 힘들다고 말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김주윤목사의 코믹한 북한 사투리에 웃기도 하고, 북한의 실상에 한숨짓기도 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해 하는 모습의 예를 들면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변화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로 끝을 맺었다.

## 비디오 촬영 봉사자 모집

교회기록보존위원회에서  
비디오 촬영에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김홍용안수집사 (011-272-6643)

## 함글함글

교회의 안팎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 교우들에게 전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확립해가는 본지의 목표를 수행할 기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주님의교회 등록교인입니다.

기자지원 및 신문기사 문의  
hamnews2006@naver.com

## 구역예배 2-5

## “묵상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



지난 2일 2교구 5구역 식구들이 유정식, 김경미 집사의 집에서 모여 구역예배를 드렸다. 김정태 구역장은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처럼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구역 식구들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묵상의 삶을 방해하는 다양한 예들을 들으며 서로를 공감하기도 하고 다시금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탁자 앞에 둘러앉은 구역원들은 친 가족과 같은 깊은 사랑과 은혜를 공유하고 있다.

30UP  
Caring for Unreached People

CCM 옥합과 함께 하는  
6월 30일 찬양예배

오늘 오후 4시  
지하1층 중정(실외 공간)

2/4분기 성찬식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11:23-25)

지난 4일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이 있었다. 짝수 달 첫 번째 주일에 진행되는 성찬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기독교의 특별한 예식이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날 밤에 제자들과 나눈 식탁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뜻하는 떡과 잔을 취함으로 주의 죽으심과 다시오심을 기억하게 된다. 계속되는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 존귀한 크리스찬에 대하여 설교한 문동학 목사는 존귀한 크리스찬으로 주님의 보혈을 함께 나누자는 말로 성찬예식을 시작했다. 성찬 준비위원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된 떡과 잔은 성찬위원들에 의해 성도들의 손에 전해졌다. 성도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며 함께 통성 기도했으며 집례자의 인도에 따라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먹고 마셨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존귀한 크리스찬이 되자는 다짐을 하며 예배를 마쳤다.

Mission 함줄함줄,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토고를 2:1로 이기고 16강을 향한 걸음 내딛 한국 대표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경기와 시험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競技)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량과 기술을 겨룸. 또는 그런 일.”을 뜻하고, 시험(試合)은, “운동이나 그 밖의 경기 따위에서 서로 재주를 부려 승부를 겨루는 일”을 뜻합니다.

뜻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태생은 다릅니다. 시험은 しあいに(시아이)라는 일본어에서 온 말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겨루기’로 순화해서 쓰도록 권하는 말이죠. ‘시험’보다는 ‘경기’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말은, ‘겨룸’이나 ‘견준’이라는 단어입니다.

겨룸은, “서로 버티어 힘이나 승부를 다투는 일”이고, “둘 이상의 사물을 질이나 양 따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 보다”는 단어가 견주다이며 동사 견주다의 명사형이 견준입니다.

이 기사는 수원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의 성제훈박사의 이메일 자료에 기초, 교회의 실정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협동 장로 부부동반 춘계 야외 기도회



지난 6월 4일 남한산성에는 야외 기도회가 있었다. 이날 기도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협동장로부부가 모였다.

풀밭에 둘러앉은 이들은 눈물과 탄식으로 삶을 이어온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기도회를 시작했다. 또한 분단 56년간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루빨리 이어주시고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는 구역예배와 교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장하며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햇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주님의교회 직분자들이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성도로 변화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맡겨진 직분을 항상 한결 같은 마음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제 20여선교회 “루디아의 집” 방문

“우리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할머니의 말씀 마음에 남기고”

6월 14일(수) 제 2선교회 회원 10명은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시각장애인 할머니들의 공동체인 “루디아의 집”을 방문하였다. 장마비 속에 야외 활동은 못하고 실내에서 준비해간 음식과 성극(돌아온 탕자)을 육성으로 들려주며 사랑을 나누었다. 또 다음 방문 때에는 최송의 집사가 침을 통한 간단한 치료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지난 5월 방문에는 강동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한다. 시각장애를 가진 한 할머니가 “앞은 보이지 않지만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저 쪽에 피어 있는 꽃이 참 아름답지요”라고 전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회원들은 가슴이 찡하았다고 한다.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던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주님의교회 여선교회원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할머니들의 인사말을 마음에 남긴 채 7월을 기억하며 발길을 돌렸다.

제 20여선교회는 매월 첫째 월요일에 월례회로 모이고, 둘째 수요일은 “루디아의 집”에서 할머니들의 산책을 도와주며 사랑의 봉사를 펼치고 있다.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저 쪽에 피어 있는 꽃이 참 아름답지요”라고

[성경 속의 인물]

“루디아”

(1)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

루디아는 빌립보의 시장에서 자춧빛 옷감을 팔던 여인이었다. 그즈음 사도 바울은 제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강변에 모여 있던 한 무리의 여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가 끼어 있었다. 여기서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2) 루디아의 헌신과 봉사

사도 바울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접한 루디아는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때부터 주님의 교회를 위한 루디아의 헌신과 봉사가 그 찬란한 빛을 발하여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한다. 그래서 루디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유럽 땅 마케도니아에 주님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된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힘들고 어려운 생계였지만 열심히 옷감을 팔아 기쁜 마음

으로 교회를 위하고 매일의 수고에 지친 주의 종 바울을 정성껏 대접하였다.

(3) 루디아의 길을 따라서

루디아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고 내세울 것 없는 시장에서 옷감을 파는 영세 상인에 불과했다.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 많은 한계를 가진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녀가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신의 작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때 모든 것이 위대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 이 여인은 교회사에 길이 남을 유럽의 첫 신자가 되었고 그녀의 작은 집은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다. 오늘 자신의 존재가 보잘 것 없고 가진 것이나 내세울 것이 없는가? 루디아를 보고 그 길을 따르라.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든,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주님께 온전히 드러진다면 주님의 손에서 별처럼 빛나는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